

건축정보센터 개관기념 세미나 개최

인터넷 기술동향과 적용사례 소개

우리협회는 오는 9월 8일(화) 13시 30분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정보센터 개관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축설계 정보화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업무와 관련해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기술동향과 적용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설계사무소에서의 인터넷 도입에 따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정보센터
전화 581-5711~4 / 팩스 583-6108

박만조 회원, 유니텔 건축상담실 개설

건축상담 및 정보서비스 제공

박만조(고우건축) 회원이 유니텔에 건축상담 IP를 개설했다.

건축에 관련된 의문점이 생기거나 생활에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PC통신을 이용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할 수 있고 건축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계, 시공에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주택수리 상담·건축일반 상담·학생진로에 관한 건축상담실과 건축자재정보·건축기행·건축잡지 목차 정보·건축시간안내 등의 건축일반정보, 건축관련법규·지방자치단체조례·질의회신사례 등의 건축법규정보, 유명건축물 사진자료·건축인허가 양식제공 등의 건축자료실, 건축계 동향·관보요약서비스·CAD 장비 선택요령 정보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베이직 정보 전화 02-3288-8981 / 유니텔 GO BASIC

건축계소식 archi-net

제12회 UIFA대회 개최

오는 9월 2일부터
'공생'이라는 주제로

제12회 UIFA(세계여성건축가협회)대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다. '공생'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민족이나 세대, 성별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나아가 옛 것과 새 것 등 '공생'의 광범위한 과제들에 대해 전세계 여성건축가들이 함께 토론한다. 행사 첫날인 9월 2일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환경의 관계를 축으로 그에 대한 건축가의 역할, 3일에는 건축과 자연환경의 공생,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건축가의 대응, 4일에는 자연재해와 도시, 시민, 커뮤니티의 방법, 지역적인 환경특성과 도시의 관계 등에 관해 토론된다.

이번 대회는 앞서 소개한 토론회 이외에도 회원들의 작품과 연구패널 전시, 스테디 투어, 공개 심포지엄 엑스커션, 포스트 공그레스 투어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제4회 간향건축문학상 심사결과 발표

박재현씨의 게토(Ghetto)가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선정

월간 건축인 POAR(대표 이용범, 이주연, 전진삼)가 건축에세이스트 발굴을

목적으로 제정한 공모전 '간향건축문학상'의 올해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당선작없이 박재현씨의 'Ghetto'가 가작에 선정됐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간향건축문학상은 올해로 4회째 개최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편이 응모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장, 부상이 수여되는데 오는 9월 9일(수)에 건축인 POAR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가작으로 선정된 박재현씨의 글은 미아리라는 특수한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와 건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기존의 3회에 걸친 응모작들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관점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주)라인건축, ISO 9001 인증 획득

업무표준 정립



ISO 9001 인증서 수여식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전문회사인 (주)라인건축(대표 송이호)이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만족을 추구할 뿐 아니라 회사의 체질을 보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또 기술력 증대, 품질향상에 의한 고객감동으로 회사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97년 12월 인증추진팀을 구성 추진한 (주)라인건축이 98년 8월 20일에 건축설계, 종합감리 및 부가서비스분야 KSA/ISO 9001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주)라인건축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업무의 표준이 정립되어 부서간 업무분장이 명확해져 업무수행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품질시스템 절차에 따라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므로 인력의 효과적인 운용과 업무능률 향상 및 상호 정보교류가 증진되어 회사의 이미지가 쇄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9회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1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회장 이재성)가 제9회 대전광역시 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초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구분되어 치러질 이번 건축대전의 대상은 대전시 지역권 내의 일반 및 학생이다.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으로서 주제는 '열린교육(Open School)의 미래상', '자연 친화적 도시형 집합주택', '도심공간 질서의 회복' 등의 3가지로 동일작품에 대해 명의를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건축대전은 대전광역시를 포함해 예충 대전광역시지회,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지부, 사단법인 대전 도시건축연구재단, 대전정서학습 장애아 후원회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월 14일 ~ 9월 23일
2. 원서교부처: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3. 작품접수처: 대전시민회관 접수처
4. 출품규정: 패널/가로, 세로 100×200cm 이내

모형/가로, 세로, 높이 90×90×90cm 이내

※ 제작물에 유리, 플라스틱류 등 반사재료 사용하지 말 것

5. 원서대: 40,000원
6. 심사결과 발표: 9월 25일
7. 시상일 및 장소: 9월 26일, 대전시민회관 소강당
8. 전시기간 및 장소: 9월 26일 ~ 10월 1일, 대전시민회관 전시실
9.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시지회 전화 042-257-0004, 042-522-3314 / 팩스 042-222-0004, 042-533-5347

월간 건축인 POAR 건축백일장 '98 개최

부제는 어진내 재생(再生) 놀이판

월간 건축인 POAR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앞두고 건축인, 비건축인이라는 규정을 벗기우고 '온 국민 모두가 건축인'이라는 새로운 명호를 부여코자 건축백일장 '98를 개최한다.

오는 9월 19일(토) 13시 30분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극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주어진 테마를 가지고 글, 그림, 만들기 형식을 조합하여 60×60cm의 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4시간 여의 제작 시간 중간중간에 현장에 초대된 건축과 문화·환경 전문가들의 제작 지원을 위한 토크쇼를 포함, 공연예술가들의 막간 공연이 이루어진다.

참가자격은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전국의 건축팬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단 1팀의 구성은 2인 이상 4인 이하의 가족, 친구 등이어야 한다. 참가팀은 당일 현장에서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100팀 이하로 제한된다.

문의: 월간 POAR 전화 02-637-3890

중앙일보, '98주택건축전 개최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KOEX 태평양관에서

중앙일보(대표 홍석현)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KOEX 태평양관에서 '98주택건축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주택 자재관, 리빙인테리어관, DIY제품 및 공구관, 건축공구관, 실내외조경연출관, 설계기술관, 사이버모델하우스관, 주택정보관, 홈오토메이션관 등으로 나누어 전시된다. 첨단 제품의 신소재, 새로운 시공기술 등이 소개되어 참가업체들은 새로운 사업 모색의 기회가, 참관인들은 경쟁력 있는 제품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주)한국메세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의 협력기관으로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지물장식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문의: (주)한국메세 전화 02-780-4007 / 팩스 02-780-4009

중앙컬처미디어 전화 02-751-9624 / 팩스 02-751-9640

"테마공간 - 건축과 조각의 만남" 세미나 개최

월간 건축인 POAR와 현대공간회가 공동으로

월간 건축인 POAR와 중견 조각가 모임인 현대공간회가 공동으로 오는 9월 26일(토) 14시에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테마공간 - 건축과 조각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코미술관 개관 3주년 기념전이자 현대공간회 창립 26주년 기념전으로 열리는 포스코미술관의 "제6회 금속과 조형전 (1998년 9월 3일 ~ 10월 15일)"에 초대되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도시공간의 활성화와 문화적 도시공간의 성장을 촉진시키자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 건축과 미술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시와 세미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건축과 미술의 전문성이 어떻게 역할해야 하며, 또한 가깝고도 먼 발치의 건축과 조각이 서로간 시선이 도시공간안에서 어떻게 간섭 가능한가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

경기대학교 경기대학원, 가을학기 특강 및 세미나 개최

건축관련분야 전문가 초빙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와 건축대학원은 건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 및 세미나는 그들의 작품 세계, 이론, 철학 및 실제 실무에서 부딪치는 제반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으로 이들 외에도 예술가와 인문사회학과의 이론가들이 초빙되므로 종합적 지식과 사고력 증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특강 장소는 서울 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과 수원 캠퍼스 8강의동 5층 시청각실이고 세미나 장소는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이다.

특강 및 세미나 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의: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캠퍼스 전화 02-390-5150 · 수원캠퍼스 전화 0331-249-9720 / 팩스 0331-44-6300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서울캠퍼스 전화 02-390-5245 팩스 02-313-4131

<특강 일정>

| | 강사 | 내용 | 수원 캠퍼스 | 서울 캠퍼스 |
|---|-----------------|-------------------|----------------|----------------|
| 1 | 차영순(이화여대 미대교수) | Architecture | 9/17 17:00 | 9/18 17:00 |
| 2 | 최종현(건축가) | 조선개국과 도성의 입지 및 실제 | 10/8 17:00 | 10/9 17:00 |
| 3 | 김동영(세명대 건축과 교수) | 한·중·일 공간 비교 | 10/29 17:00 | |
| 4 | 김용대(호암미술관 큐레이터) | 한국의 건축공간과 미술의 관계 | 11/12 17:00 | |
| 5 | 최두남(건축가) | 건축적 체험의 실제 | | 10/16 17:00 |

<세미나 일정>

| | 강사 | 내용 | 날짜 / 시간 |
|---|-----------------|-----------------|------------|
| 1 | 차명렬(시드니대 건축학박사) | 건축스타일 인지에 관한 연구 | 9/4 15:00 |
| 2 | 서정호(조명예술가) | 조명의 미학 | 9/11 10:30 |
| 3 | 권양수(사진작가) | 사진 예술론 | 9/18 10:30 |
| 4 | 한태희(성균관대 의대 교수) | 생명현상의 정보기전 | 9/28 15:00 |

성균관대학교, '98 성균건축전 개최

주제는 시민 공공장소로서의 한강



성균관대학교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갤러리에서 Han River as a Public Place(시민 공공장소로서의 한강)라는 주제로 '98 성균건축전을 개최한다.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정주하면서부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진 한강을 서울

이라는 거대 도시내의 공공공간으로서 인식하고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건축적 관점에서 접근, 해결하고자 전시회와 아울러 작품집도 발행했다.

인덕대학 건축과, 특별강연회 시리즈 개최

주제는 건축의 다양한 표현 영역

인덕대학 건축과가 건축의 다양한 표현 영역을 주제로 한 98년 가을학기 특별강연회 시리즈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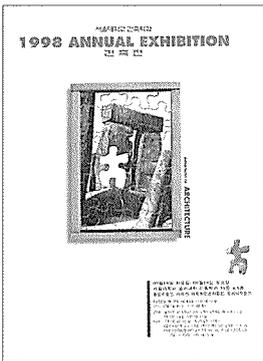
이번 강연회는 조형예술가 기흥성씨가 8월 28일(금) 17시에 모형을 이용한 건축표현, 건축가협회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채수욱씨가 9월 28일(월) 17시에 사진과 건축표현, CAD & CG디자이너 조경호씨가 10월 28일(수) 17시에 건축설계에서 컴퓨터 그래픽의 응용화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문의: 인덕대학 건축과 전화 02-901-7590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전 개최

강연회, 좌담회, 기타 작품전 병행

서울대학교 건축과가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35동 4·5층에서 건축전을 개최한다. 9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 김창수(삼우종합건축 소장)씨의 "설계사무소의 현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회, 17일 김흥수(모람건축 소장),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소장), 임재용(O.C.A. 소장), 천의영(계원예술조형예술대 교수), 최 욱(K & C 소장), 한만원(환경건축 소장)씨 등의 참석하에 "건축가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졸업작품전, 과제전, 대학원참조작품전, 동아리작품전 등이 같이 실시된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태양열 건축설계 공모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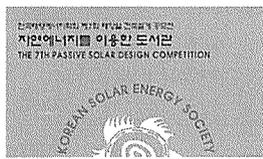
9월 7일부터 응모신청접수

한국 태양에너지학회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도서관'이란 주제로 태양열 건축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7회가 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특히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식과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한건축학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응모신청접수를 받고, 11월 1일에는 작품 접수를 마감한다.

문의: 032-872-1558



4월 29일
1998년 9월 7일 - 9월 21일
작성접수기간
1998년 11월 15일
간행일
1998년 11월 15일 - 17일 17일
도시
건축에너지학회
주최
대한건축학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건설교통부

'99 건축문화의 해 엠블럼 · 로고 · 슬로건 공모

9월 15일까지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99건축문화의 해에 사용될 엠블럼 · 로고 · 슬로건'을 공모한다.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될 엠블럼은 「문화예술로서의 건축」이라는 건축본연의 의미와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엠블럼과 로고는 표현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A3 크기의 폼보드에 결과물을 부착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작품은 디스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A4용지 1매 내외의 작품설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작품은 공동제작이 가능하며 1인당 3점 이내로 제한된다. 로고는 1인당 3점 이내로 16자 내외의 글을 관계엽서에 적어 보내면 된다.

오는 9월 15일(수) 17:00에 응모 마감되며 당선작 발표는 9월 23일 개별통지된다.

문의: 744-8050 · 팩스: 743-5363

건축시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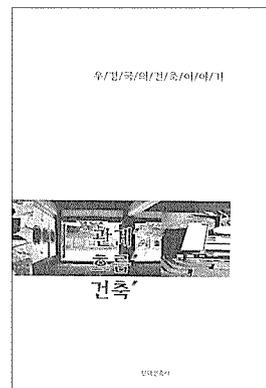
우경국의 건축이야기 "관계/흐름/건축"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 건축분야를 위한 CAD실습과 응용 조경수목도감

◇우경국의 건축이야기 "관계/흐름/건축"

생태순환론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 현상학적 접근과 텍토닉적 접근을 통해 추출된 언어를 건축언어로 재번안하는 과정에서 실험한 건축과 에세이 등을 재정리한 책이 발행됐다.

이 책은 건축이라는 사물의 존재를 우주라는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의 한 인자로 보고 인간과 자연과 건축을 본 것이며, 실체의 존재성은 사물을 존재케 하는 실체와 실체 사이의 관계, 즉 비실체의 존재를 '제1의 실체'로 인식하고 그 생명력을 '흐름'으로 파악했다.

우경국 지음 / 현대건축사(02-549-6444~5) 펴냄 / 4×6배판 / 177쪽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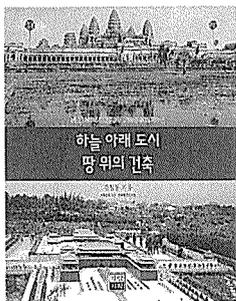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문화재 전문위원인 김정동 교수가 동·서양의 도시와 건축들을 기행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근대사를 파헤친 세계건축문화 기행서를 출간했다.

1, 2권 총 33편의 세계 도시건축 기행을 통해 저자는 남의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닌 세계의 건축기행에 우리와의 연관성을 부여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발자취를 발견해내려고 했다.

1권 아시아로 가는 길, 2권 서양으로 가는 길로 엮어진 이 책은 단순히 세계의 유명한 도시와 건축에 대해 나열하듯 설명한 것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에 얽힌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그 속에서 세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의 근대사를 찾아내고 이를 우리의 반성으로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각도의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 책에는 저자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과 안타까움이 베어 있는데 세계에 없는 우리만의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철원에 대한 고찰을 포함, 일반의 의식에서 버려진 우리의 역사를 세계의 문화유산의 하나로 되돌아 보게 하고 있다.

김정동 지음 / 도서출판 가람기획(02-815-1253) 펴냄 / 변형 신국판 / 1권 374쪽, 2권 340쪽 / 각 1만3천원



◇건축분야를 위한 CAD 실습과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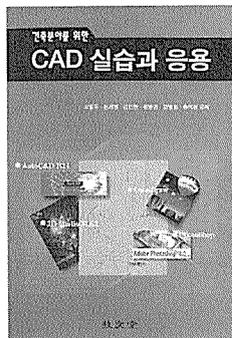
CAD 교재로써의 복잡하고 많은 명령어 해설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과제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과제에 대한 단계적 결과에 대해 사용자

가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현 실무분야에서 실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초보자부터 중급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여러 명의 저자가 실제로 대학과 실무자에게 CAD를 강의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이다.

초보자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 실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오랫동안 실무를 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등이 Auto CAD Release 14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있고 아울러 3D Studio MAX를 중심으로 한 Rendering 기법, Photoshop, CorelDraw를 중심으로 한 Presentation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일두 외 5인 共著 /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발행 / 국배판, 반양장 제본 / 366쪽 / 2만원



◇조경수목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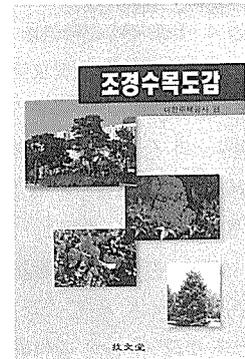
기존의 도감류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학적 정보보다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생태적 정보를 충실하게 수록한 책이 출간됐다.

수목사진도 이른 봄 신엽으로부터 꽃, 녹음, 열매, 단풍, 수피의 모양 등의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수목의 형태와 특징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종은 조경수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150여 종을 선정, 상록침엽교목, 상록활엽교목,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만경류 및 기타 수목 등 여섯 가지 성상별로 분류되어 있다. 용어도 우리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또 뒷부분에 '수목용어 도해 및 해설'이 덧붙여 있어 이해하기도 쉽다.

조경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수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경분야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대한주택공사 著 /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발행 / 국배판, 반양장 제본 / 236쪽 / 2만 5천원



한전, 축냉설비 설치자금 무상으로 무한 지원

한국전력(사장 장영식)은 업무용 빌딩에서 값싼 심야전력(밤 10시~아침 8시)을 이용하여 무더운 낮시간에 냉방을 할 수 있는 축냉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게 8월부터 설치자금을 무상으로 무제한 지원하고 있다.

축냉설비는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야간에 얼음 등을 만들어 저장하였다. 이를 낮시간 냉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식 냉방 시스템으로써 다른 냉방설비에 비해 냉방유지비가 저렴한 고품질의 냉방설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치비가 과다하여 그동안 보급확대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한여름철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전력설비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최근 IMF경제불황기에 외화절약은 물론 경제난 극복에도 일조가 될 것으로 본다.